

2001 봄호

스물 여덟

보관용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 마을



Korea Childhood Leukemia Foundation

재단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백혈병어린이후원회가 2001년 1월부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http://www.childcancer.or.kr>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회장 송상현
서울대 법대 교수

올 겨울은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교통대란에 혼란스러웠고, 농촌지역은 설해로 인해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눈이 많이 오면 다음 가을엔 풍년이 든다는 옛말을 믿어봅니다. 곡식뿐 아니라 경제전반이 풍요로워지길 새 봄을 맞아 기대합니다.

후원회도 안팎의 여러 여건들 때문에 어렵게 어렵게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여러 후원자님들 덕택에 그간 10여년 간의 활동을 정리하여 '재단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법인이 된다는 것은 저희 활동이 안팎으로 더욱 공신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그 동안 여러 후원자 및 기업체에서 도와주신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을 공익기부금으로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늘 도와주고 계신 여러분들께 세제혜택을 확실히 드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동안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0년을 되돌아보면 감사해야 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두산베어스, 레고 코리아(주), 경기도 동창회, 사랑터,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 기업은행노동조합, 하나은행노동조합, 삼성SDS 푸른마을봉사클럽, (주)제일기획, 한국 루스텍 테크놀로지스(주),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 벼룩시장, 그리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드러나지 않게 늘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한뜻후원자, 천사백후원자, 한사랑후원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저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정성에 머리 숙여 감사를 포함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으로 거듭 나면서, 현재의 활동들(쉼터 운영, 진료비지원, 캠프, 입원아동학습지원, 상담, 자료발간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재발된 어린이를 위한 활동, 완치된 어린이의 학교적응, 가족모임 등을 더 보완할 계획입니다. 재단법인이 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저희 후원회가 처음 발족되었던 1991년으로 되돌아가 처음의 절박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움이라는 것. 가슴이 설레기도 하는 단어지만 도전과 의지가 있을 때만 더 의미가 커지리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후원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법인설립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혈병어린이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기도 어언 十餘星霜(십여성상)이 지났군요. 그동안 소아암 및 백혈병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보람된 일을 많이 하시어 왔지만 이번에 재단설립인가를 받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욱더 우리 환자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많은 발전과 번영을 축원드립니다.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장
최용묵

안녕하십니까?

백혈병어린이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언 十餘星霜(십여성상)이 지났군요. 그 동안 소아암 및 백혈병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보람된 일을 많이 하시어 왔지만 이번에 재단설립인가를 받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욱더 우리 환자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많은 발전과 번영을 축원드립니다.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장 최용묵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법인설립을 축하합니다. 그간 임의단체의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귀 재단의 새로운 발족을 계기로 백혈병어린이와 가족들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확산,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김응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법인설립을 축하합니다. 그간 임의단체의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귀 재단의 새로운 발족을 계기로 백혈병어린이와 가족들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확산,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김응일



또 하나의 도약을 위해 애쓰신 재단 가족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에 깊은 존경과 함께 하는 기쁨의 마음을 전합니다.

환한 웃음과 힘찬 활력이 샘솟는 멋진 모습을 기대합니다.

2001. 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새생명지원센터 소장 한성우



축하합니다



백혈병 어린이와 부모님들의 아픔을 함께 해오면서
이분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오던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으로 확대 발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를 계기로 더욱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무서운 병과 힘겹게 싸우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변함없는 정성으로 큰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봉사단체 사랑터 회장 이명우

백혈병어린이와 부모님들의 아픔을 함께 해오면서
이분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오던 백혈병
어린이후원회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으로 확대
발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를 계기로
더욱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무서운 병
마와 힘겹게 싸우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변함없
는 정성으로 큰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봉사단체 사랑터 회장 이명우

백혈병어린이재단의 인가를 축하드리며, 어린이
여러분의 빠른 회복과 밝은 모습을 위해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세요

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 시석중

**백혈병 어린이 재단의 인가를
축하드리며, 어린이 여러분의 빠른
회복과 밝은 모습을 위해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세요!
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 시석중**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합
니다.

재단설립은 백혈병어린이후원회에서 희생적으로
봉사한 많은 숨은 사람들의 소중한 사랑의 열매
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냅시다. 파이팅!!!

동남교역상사 직원일동

"한국 백혈병 어린이 재단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재단설립은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에서
희생적으로 봉사한 많은 숨은 사람들의
소중한 사랑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냅시다. 파이팅!!!

동남교역상사 직원일동,

만화/ 글

황경애 / 96년, 15세 때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을 진단받은 경애는
현재 한양대학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이
도와주세요.”



내 작은 천사에게 찾아온 백혈병

오늘도 천사들에게 찾아온 병마를 물리치는데 도움을 주고자 동분서주하실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올려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동안 가슴이 답답하여 찾아보지 않던 인터넷을 열어보니 그래도 환아의 어머니로 고맙다는 인사라도 올리면서 이번 해를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여 8년만에 낳은 큰아들. 그리고 2년 후에 정말 넘친다 생각이 들만큼 덩으로 얻은 작은아들 우리 민성이. 지금 민성은 백혈병으로 4차 항암까지 끝내고 유지요법을 시작한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빠졌던 머릿도 까맣게 올라오고 정말 여느 아이들처럼(마스크만 빼다면) 건강하게만 보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형이 유치원 가고 나면 저 혼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똑딱똑딱 목공놀이도 하고 소꿉놀이도 하고, 때로는 혼자서 로봇도 되는 등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논답니다.

민성은 자기 뱃속에 나쁜 개미세균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크리스틴을 맞고 배가 아프면 "엄마! 세균이 뱃속에서 이렇게 싸워!" 하면서 두 주먹을 마주치며 싸우는 흉내를 내지요. 너무 깜찍한 행동들 때문에 정말 자주 웃어요. 이제 민성은 주사를 맞아도 피검사를 해도 울지 않아요. 대신 "엄마! 나 잘 참을 수 있어. 그래야 교수님도 선생님도 예뻐하신대!" 라며 웃는 아이가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잘 견디어 주는 아이가 낯이 고맙기만 하답니다.

저는 일단 한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그래도 지난 5월달 처음을 생각하면 지금의 내 생활은 상상도 못하던 일이거든요. 전 병원에서 계속하여 살아야만 하는 줄 알았을 만큼 그런 무지한 그냥 주부에 불과했으니까요. "병원24시"를 보면서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네! 너무 불쌍하다! 나도 부자는 아니니까 ARS전화나 몇통하자! 우리식구 건강한 것도 복이야!' 그러면서 지냈드랬어요.

저는 올 한해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지나갑니다. 백병원에서 처음 진단을 내려주셨던 선생님, 또 삼성서울병원에서 전공의 파업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혼자서 그 많은 환자들을 정성으로 돌보아주신 교수님, 또 항상 웃음 속에서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도 받아주신 모든 간호사 선생님, 정말 발로 뛰면서 이렇게 환아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애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아직은 세상도 따뜻하고, 또 우리 민성이가 자라면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널 위해 힘쓰셨다고, 정말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자신 있게 아이에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줄일게요.

2000년 12월 9일
의정부에서 민성이 엄마가

올해 다섯살인 민성은
2000년 5월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진단받고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00년 4월 엄마와 영희 함께
울산에서 촬영
오른쪽 새니아가 민성이입니다.



2001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 모든 은행통장의 예금주가 '백혈병어린이후원회'에서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재단의 지로번호가 7607451에서 '698144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우리 재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으로, 후원금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로를 통해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님들께서는 지로영수증을 모아두시면, 연말정산시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로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님들은 연말정산시 영수증을 재단 사무국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새빛누리회 행사안내

새빛누리회는 백혈병 환우 스스로 일어난 자조모임으로 성인 백혈병 환우를 위한 단체입니다.
 우리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새빛누리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협조, 보완하여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활동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빛누리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행사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환자 가족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일시	행사내용	비고
4월 21일 (토)	의학세미나 (치료관련 의료진 상담)	자문교수(이홍기/삼성의료원)
5월 12일 (토)	의학세미나	자문교수(이홍기/삼성의료원)
5월 27일 (일)	새빛 산악회(북한산)	사전 참가신청요 참가비: 어른/일만원, 어린이/오천원
6월 9일 (토)	의학세미나	자문교수(이홍기/삼성의료원)
6월 16일 (일)	새빛 문화답사회(자운서원)	사전 참가신청요
7월 14일 (토)	의학세미나	자문교수(이재환/서울중앙병원)

- ◆ **의학세미나**는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환우와 가족에게 올바른 투병지식과 완치에의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투병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매달 각 혈액질환별로 열리며 질환에 관한 강의를 포함,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투병하는 의지를 돈우고 함께 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 ◆ **새빛 산악회**는 서울 인근산을 오르며 백혈병으로 치료중이거나 치료를 마친 후 건강을 찾아가는 환우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의료진 동반으로 환자들이 격의 없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 ◆ **새빛 문화답사회**는 서울 인근의 유적지 등 사연과 역사가 깃들여 있는 장소를 찾아 친목을 도모하고 의료진 동반으로 환자들이 격의없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참가신청 및 문의처 : 새빛 사무국 (02) 704-0807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8 성지빌딩 805호

홈페이지 : <http://sbnuri@allmedicus.co.kr> · 이메일 : sbnuri@ewebmail.com

경호원을 향하여 전진 앞으로!



'지금은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항상 그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다. 일주일동안 매일 통화를 시도했지만 한번도 통화를 할 수 없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도 안되면 다른 사람을 찾아야지!' 마감시일을 하루 앞두고 조금한 마음으로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들려오는 소리 '여보세요!' 그와의 인터뷰는 이렇게 힘들게 시작되었다.

KCLF 통화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많이 바쁘셨나봐요?

병 준 조금 바빴어요. 지금 잠깐 쉬는 중이었는데...

KCLF 제가 운이 좋았네요. 사실은 직접 뵙고 인터뷰하고 싶었는데, 전화로 할 수밖에 없어서 아쉽네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굉장히 멋쟁이시라던데...

병 준 그래요? 제가 좀 멋지죠. 잘생기고, 착하고, 매너있고... 참! 남성이형(완치자모임 회장-2000년 여름호 참조)한테 대충 인터뷰에 대해서 설명을 들긴 했지만, 사실은 어렸을 적 일이라서 기억은 잘 안나요. 대답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KCLF 시간을 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된답니다. 처음 발병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병 준 6살 때 처음 발병했는데, 그전에는 여느 아이들처럼 해맑은 아이였습니다. 몸도 굉장히 건강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배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씩이나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약만 사다가 먹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밤에 잘 때 제 배를 만져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배에서 무슨 혹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까운 병원

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어머니는 저를 업고 큰 병원으로 옮기셨죠.

KCLF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겠네요. 그때부터 힘든 치료과정이 시작되었을텐데, 치료과정 중 기억나는 일 있으세요?

병 준 입원을 한 후 바로 수술을 받았어요. 한 30cm정도 아랫배를 가르고 종양을 제거했죠.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무섭습니다. 치료기간 중에는 항암치료를 받아서 머리가 다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조금 창피하게 말이죠. 그때 일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생각도 잘 나지 않습니다. 참! 그리고 한달 조금 넘게 입원을 하고 퇴원할 때에는 장난감 총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었죠.

초등학교를 입학한 뒤에도 3학년인가 4학년 때까지는 외래치료를 받느라 학교도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싸움질도 많이 하고, 먹는 것도 가리지 않고 다 먹었고요.

KCLF 벌써 치료가 끝난 지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주위 친구들은 병준씨가 과거에 투병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병 준 배에 수술자국이 있다는 것 빼고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죠. 지나가는 얘기처럼



유병준

1980년 생

1986년 악성림프종 진단

1990년 치료종결

현재 신주시스템 근무

하면 잘 안 믿어서 배의 자국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때서야 믿어요. 사실 일부러 이야기하진 않아요.

KCLF 22살이면 군대도 가야 할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병준 제 키가 180cm고 몸무게가 66kg거든요. 얼마 전에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현역1급 판정을 받았답니다. 정말 신체 건강한 청년이죠. 하지만 의사선생님께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갈까 말까를 고민중입니다.

KCLF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병준 제가 운동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보는 것도 좋지만 하는 걸 더 좋아하죠. 축구, 야구, 농구 등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운동을 실컷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경호원이 적당할 것 같아요. 요즘은 일하느라고 운동을 많이 못했지만 한 5년 후에는 꼭 경호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KCLF 신체조건도 좋고, 운동도 잘하시니까 정말 멋진 경호원이 될 것 같아요. 5년 후의 모습이 정말 기대되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해주세요.

병준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병에 걸렸어도 자기만 열심히 생활한다면 누구보다도 건강해 질 수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제 꿈이 경호원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뭔지를 발견하고 꼭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우체국 혼사랑의 집



폭설과 폭한으로 인해 병원을 오가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유난히 힘들게 했던 지난 겨울, 저희 '혼사랑의 집'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우체국 혼사랑의 집

생일잔치가 열립니다!



입원환아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또 생일인 어린이에게는 예쁜 선물과 축하의 박수... 얼마나 신나는

지 몰라요! 가톨릭성모병원을 이용하는(입원, 외래 모두) 어린이와 가족들은 매월 셋째주 화요일 11시30분 11층 소아과회의실로 모여세요!!

〈담당 사회복지사 전성미〉

대구 우체국 혼사랑의 집

여러 사정으로 개소가 늦어지고 있어 너무나 죄송합니다. 지금 외관공사를 시작한 상태로 4월 중순부터는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대구경북지역의 환아와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하정연〉

광주 우체국 혼사랑의 집

'피자의 날'의 행사가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1월부터 풍암지구 우미상가에 위치한 우미떡집과 차이나반점, 아주커 치킨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께서 '피자의 날' 행사가 더욱 뜻깊은 자리이길 바라신다면서 떡, 탕수육, 통닭 등을 정성껏 마련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어린 관심 덕분에 매월 첫째주 목요일 - '피자의 날'이 열리는 혼사랑의 집에는 웃음꽃이 가득하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정 옥〉

부산 우체국 혼사랑의 집



지난 2월부터 '세탁서비스'와 '비디오 시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아 부모님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세탁서비스는 환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병실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세탁한 후 병실로 갖다 드리는 것으로 이를 위해 새하얀 세탁공장의 강대소 사장님과 이연심, 정진곤, 문승희, 윤명자, 고영동님이 자원봉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박미주〉

♡ 후원물품을 기증 받습니다.

복사기, 전자렌지, 청소기, 에어컨, 온풍기,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프린터, 소형냉장고, 팩스, 컴퓨터, CD카세트, 선풍기, 교육용비디오, 아동용도서, 쌀, 식기set, 주방용품set 등

♡후원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산 후원물품 (2000. 12. 28~2001. 2. 28)

후원자	품명	수량	후원자	품명	수량
서명교	헌혈증서	2장	정선훘	좋은생각	12권
체신청	냉장고 TV		서대신우체국	과자류	
동아대병원	식기건조기	1	천윤정	책	50권
	커피메이커	1			
	카세트	1			
부산대부모모임	후원금	50000	권택수	비디오테이프	17개
				레고	1세트
고신사랑회	후원금	100000	조승현 母	미끄럼틀	1개
	음료				
전국백혈병 소아암부모연대	후원금	100000	박솔우	게임CD	3
				헤드 셋	2
이선경	시계	4개	감유리	음료	
조승희	액자	2	故김승희 母	김치	
	화분	3			
장동옥	쓰레기통	1	다영母	꿀	
옹달샘	책	158권	양수정	책	38권
	비디오	7개			
	영어테이프	22개			
백세열 母	김치				
	찬기세트				
고태환	쌀	20KG			

◆ 광주 후원물품 (2000. 12. 1~2001. 2. 28)

품명	수량	후원자
도어벨	1	박찬희 부모
히터	1	한정인 부모
헌혈증	11	조선대 모사리 동아리
"	32	호남대 사회봉사센터
놀이기	11	"
후원금	500,000	체신청
동화책	49	남수현 부모
비디오	28	
CD(두기의 하루)	1	
스케치북	5	
숫자카드	1	
한글카드	1	
색깔카드	1	
EQ박스	1	
날말배우기	1	
말잇기시리즈	1	
퍼즐	3	
소꿉놀이세트	1	
세발자전거	1	
블럭	1	
병원놀이세트	1	
나무블럭	1	
구슬꿰기	1	
장난감전화기	1	
딸랑이세트	1	
장남감피야노	1	
유모차	1	
의료용품(1박스)	1박스	
후원금	200,000	
아동양말	1000켤레	최익선(전남대병원전공의)

♡우체국 훈사랑의 집 후원회원 모집

'우체국 훈사랑의 집'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함께 할 따뜻한 마음의 후원회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후원금액 / 월1천원(어린이회원) 월5천원 월1만원 월2만원 년회원(5만원 이상)

※ '우체국 훈사랑의 집' 회원은 지로용지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국 (02) 766-7671~2

우체국 훈사랑의 집(서울) (02) 704-8310

우체국 훈사랑의 집(광주) (062) 234-5528

우체국 훈사랑의 집(부산) (051) 244-7677

우체국 훈사랑의 집(대구) (053) 253-7671

♡우체국 훈사랑의 집 신규후원자

◆ 우체국 훈사랑의 집 신규 후원자 (2000. 12. 1. - 2001. 3. 10.)

· 서울 : 양소정 양호진 오성란 이재호 이정준 임성호 장규철 채보영 · 광주 : 김성곤 유금희 · 부산 : 서홍찬 손현성 하현균 · 대구 : 박금숙 정현정 조진형 최서락 최형욱

◆ 제일생명의집 신규 후원자 (2000. 12. 1. - 2001. 3. 10.) / 박현희 이옥희 김준규

8주간의 만남

자원봉사자 이주연
한양대학교 영문과 3학년 재학

봉사를 처음 시작하는 마음은 설레었다.

백혈병 아이들을 돕는 것은 물론 처음이었고, 나에게 있어 봉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는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봉사를 할까 결정할 때, 노동의 강약에 의존하기보다는 과연 보람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라는 이름은 나에게 있어 진정 '봉사'라는 이름에 맞게 여겨졌다. 그래서 주저 없이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다. 더욱이 어린이와 함께 놀아주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보람되고 재미있을 것 같았다.

이런 결정을 하고 난 후 TV에서 '가시고기'라는 특집극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단지 픽션일 뿐이었지만, 힘들어하는 아이의 모습에 보는 내내 마음이 아팠고 많이 울었다. 그 드라마는 내가 같이 놀고 도와주고 해야 할 아이들의 모습을 비교적 자세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사전에 그 병에 대하여,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고, 남의 일이 아닌 주위의 일로 병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 조금의 두려움을 안겨 주었다.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이번 봉사활동을 하면서 백혈병이라는 질병에 대하여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 무언가를 막연히 보는 것과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듯이 나의 이 체험이 백혈병에 대한 나의 인식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병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임을 알았고, 그저 아이들이 불쌍하다거나 하는 느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젠 그렇게 두려워만 하지 않고 모두 함께 극복해 가야하는 것임을 알았다. 더욱이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교육의 어려움을 새삼 느꼈다. 특히 특수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보통의 아이보다 더 신경을 써주어야만 했고, 좀더 다른 방법으로 대해야만 했다.

하지만 많은 시간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고, 지내왔던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좀더 철저한 준비로 임하고 아이들에게도 좀 더 많은 애정과 사랑으로 대하고 싶다.

우리 재단에서는 병원에 입원해있는 백혈병 및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번씩 놀이프로그램인 '푸른우리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병원(금요일 오전 9시)과 한양대학병원(화요일 오후 2시)에서 실시 중입니다.

나만의 특별한 후원방법 - 동전모으기로 전하는 사랑

허두숙 회원(한뜻 8-084)

평범한 직장인 허두숙 씨! 그녀의 동전모으기 습관은 단지,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거나, 물건값을 계산하고 남은 동전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저금통에 동전이 꽉 차면 그냥 통장에 입금을 했었는데... 동전까지 쓸어모아 저금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무심코 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 그녀가 올 초, 문득 '동전모으기'로 이웃을 도와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어린이를 돕는 단체를 찾아보았죠." 그렇게 해서 소아암 어린이를 돕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저금통에 동전을 넣을 때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나눔의 의미를 느끼고 있다. 너무 평범하고 작은 일 이어서 썩스럽다는 그녀. 동전을 넣을 때마다 사랑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우리는 안다.

어린 자녀와 함께 한달 동안 동전을 모아보는 건 어떨까요?
자녀와 함께 동전을 세어가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면
우리의 마음에도 사랑이 커갈 것입니다.



한뜻후원자 소식

감사합니다.

신규회원 소개(2000. 12. 1. ~ 2001. 3. 10.)

강희경 금미향 김 별 김 솔 김남연 김미화 김삼진 김선규 김성기 김성태 김은영 김장수 김정철 김정훈 김종욱 김효진 노현준 류경아 문명식 문지현 박경수 박선제 박정은 박주홍 변미숙 서성복 손재용 신민정 신윤환 신진해 안미정 엄익정 연세신경정신과의원 우경조 유예지 유혜정 윤원석 이대노조 이옥희 이원영 이은주 이종필 이현구 이현정(부천시) 이현정(경주시) 임영돈 장정옥 정유진 조미숙 차미현 최영준 최은교 최형욱 최혜주 하나로 황혜진

한뜻 후원자는 소아암어린이들을 위한 정서·정보지원사업을 지원하는 후원자입니다.

금액은 제한 없으며 지로와 자동이체(국민, 조흥, 농협, 기업은행, 우체국) 방법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재단사무국에서 받습니다. (☎ 02-766-7671)

※ 한뜻소식란에 실을 한뜻후원자님들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지, 시 등 형식 및 소재 자유)

사랑이 모이는 곳

2000년 연말, 단체·개인의 헌혈증서 기증이 이어졌습니다.

6년간 헌혈증서 모으기 운동을 지속해 오고 있는 벼룩시장(사장 주원석)에서는 2000년에도 각 지회를 통해 모아진 헌혈증서 1,464장을 재단에 기증하였고, 인터넷 경매 셸피아(대표 윤 용)에서도 2000년 12월 한달 동안 크리스마스 이벤트의 하나로 헌혈증서 보내기 행사를 진행하여 네티즌이 보내온 헌혈증서 143장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종성)은 2000년 12월을 '이웃과 함께 하는 달'로 정하고 '사랑의 헌혈운동'을 통해 199장을 모아 재단측에 전달하였습니다.



헌혈증서의 안정적인 확보에 힘입어 2001년에는 지원범위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보다 많은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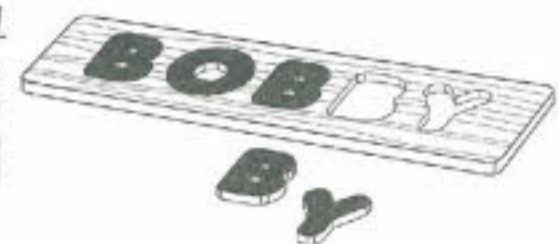
(주)폴리미디어&드림팩토리에서는 1월 4일부터 7일까지 '차카게 살자'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승환 콘서트의 공연수익금 3,000만원을 재단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콘서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이승환씨, 공연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금은 정여은(서울대학병원), 김아현(삼성서울병원), 윤소영(인천길병원) 어린이들의 골수이식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주)에스콰이어에서는 지난 일년동안 쇼핑백을 판매하고 모은 기금을 백혈병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하고자 재단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후원금은 2001년동안 총 8명의 어린이들을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2월에는 송영학(서울대학병원), 3월에는 박소연(서울대학병원)어린이에게 항암치료비용으로 3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여러분! 쇼핑백을 사는데 주저하지 맙시다!



맥킨지인코포레이티드 직원들은 2000년 한해를 정리하면서 뭔가 뜻깊은 일을 하고자 의기투합,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 700만원을 재단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후원금은 김은이(서울대학병원), 이동재(서울대학병원) 어린이의 항암치료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레고코리아 (대표이사 스티븐 록 스코허드)에서는 지난해 12월 중순, '병실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은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재단에 레고블럭 200개를 전달하였습니다. 재단에서는 각 병원 부모회를 통하여 경희의료원을 비롯한 8개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어린이들에게 이 선물을 소중히 전달하였습니다.



(주)SK&(주)네이버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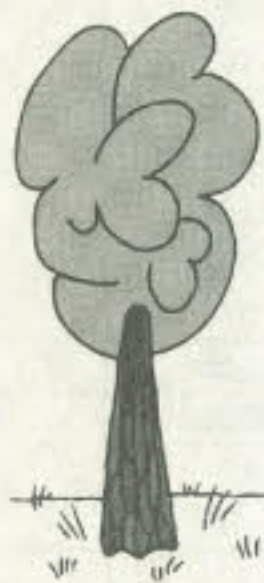


역시 사이버속 열기는 빠르고 뜨거웠습니다. 한달동안 인터넷을 통해 OK cashbag 회원들이 가지고 있던 포인트를 기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던 행사에서 무려 2,000만원이 모여졌답니다. 또한 격려와 용기의 글도 5,000건이나 되었습니다. 후원금은 송주희(가톨릭성모병원), 최민식(삼성서울병원), 이정희(서울대학병원)어린이의 골수이식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400만원 상당의 크라운 베이커리 상품권이 소아암 어린이 쉼터인 '우체국 훈사랑의 집'으로 전달되어 각 쉼터별 생월잔치에 사용할 것입니다. 행사에 참여하신 네티즌, 행사를 준비하신 (주)네이버컴 여러분, 회사의 이익을 포기하고 어린이들을 위해 선뜻 후원금을 준비하신 (주)SK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망씨앗 사랑의 콘서트



재단의 회보가 나올 때마다 10여명의 학생들이 몰려와 일손을 도와주곤 했던 성광 감리교회는 지난 2월 4일 100주년 기념관에서 '소망씨앗 사랑의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소아암 어린이들의 실상과 어려움 등을 알리고, 기념버튼을 판매하였습니다. 주머니속 돈을 털어 버튼을 구입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나무심기 대회 및 삼성박물관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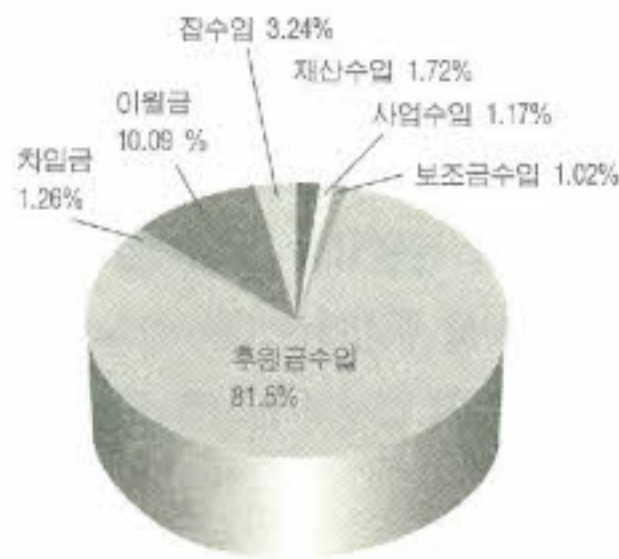
여러분의 이름으로 희망나무를 심어보세요! 새봄과 함께 여러분의 희망이 싹싹 자랍니다.

- 언 제 : 2001년 4월 4일(수요일)
- 누 가 : 소아암 어린이 20가족(약 60여명)
- 무엇 을 : 희망나무심기와 삼성박물관 견학(견학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누구랑 : 삼성생명 직원들과 함께
- 신청은 : 재단 사무국 (02) 766-7671~3

서두르세요! 선착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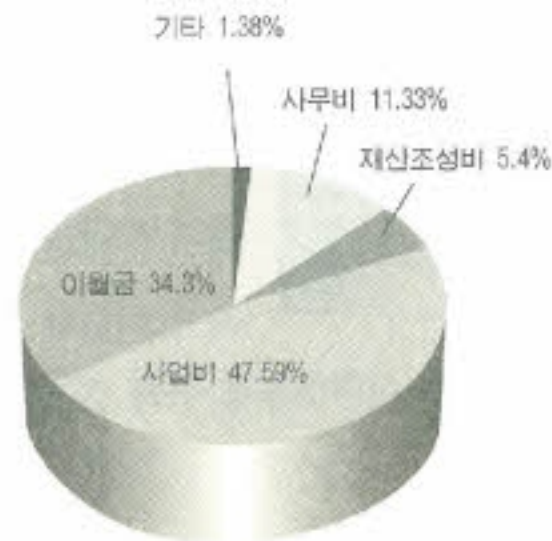
2000년 사업보고서

1.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결산보고 : 이 결산보고는 천사백·한뜻을 비롯한 재단전체의 결산보고입니다.



1) 수입

구분	(단위: 원)
재산수입	16,774,090
사업수입	11,423,000
보조금수입	10,000,000
후원금수입	789,822,600
차입금	12,272,450
이월금	97,833,030
집수입	31,472,158
합계	969,567,328



2) 지출

구분	(단위: 원)
사무비	109,822,440
재산조성비	52,406,430
사업비	461,413,233
이월금	332,591,140
기타	13,334,085
합계	969,567,328

* 재산조성비에는 백혈병어린이 센터인 우체국 혼사랑의 집 시설미련을 위해 사용된 지출이 포함됩니다.

구분	사업명	사업실적	사업비(원)	비율(%)
경제적지원	천사백수술비지원	26(명)	104,234,000	22.60
	입원진료비지원	28(명)	81,429,258	17.65
	외래진료비지원	81(명)	62,700,000	13.59
	헌혈증지원	3,654(매)	48,598,200	10.53
	가발지원	46(명)	32,200,000	6.99
	부모모임지원	-	11,189,830	2.43
	추진경비	-	158,950	0.03
정서적지원	입원환아집단활동	2(병원)/64(회)	204,010	0.04
정보지원	상담	330(사례)	1,617,040	0.35
	홈페이지및PC포럼운영	-	2,638,950	0.57
	소식지발간	4회/35,200(부)	5,877,600	1.27
기획사업	직원교육비	-	338,900	0.07
	홍보	-	640,000	0.14
	수술비후원회원관리	4,447(명)	4,798,450	1.04
	사업비후원회원관리	400(명)	1,300,000	0.28
	유관단체관리	-	661,320	0.14
	자원봉사관리	-	429,580	0.09
시설운영사업	시설운영사업비	센터	95,397,145	20.68
연구지원사업	연구지원사업비	purgng비용지원	7,000,000	1.51
합계	-	-	461,413,233	100

* 경제적 지원 중 가발지원과 헌혈증지원 현황은 현물을 현금으로 환산한 것임.

2. 센터

지방 환아들을 위한 숙박시설



제일생명의 집

(2000.1.~2000.12.)

1)수입	(단위 :원)
입소자부담금	11,306,000
후원금	2,503,800
재단전입금	9,553,000
이월금	1,598,392
잡수입	394,790
합계	25,355,982

2)지출	(단위 :원)
운영비(인건비포함)	18,923,410
자산취득비	1,420,300
시설비	0
시설장비유지비	260,500
사업비	3,628,120
잡지출	0
이월금	1,123,652
합계	25,355,982

서울 우체국 혼사랑의 집

(2000.3.~2000.12.)

1)수입	(단위 :원)
입소자부담금	70,000
후원금	10,457,410
재단전입금	40,386,900
이월금	0
잡수입	6,661
합계	50,920,971

2)지출	(단위 :원)
운영비(인건비포함)	12,587,655
자산취득비	17,600,310
시설비	18,172,720
시설장비유지비	930,360
사업비	1,206,530
잡지출	205,000
이월금	218,396
합계	50,920,971

광주 우체국 혼사랑의 집

(2000.3.~2000.12.)

1)수입	(단위 :원)
입소자부담금	35,000
후원금	16,072,490
재단전입금	43,814,100
기타차입금	16,454,950
이월금	0
잡수입	10,528
합계	76,387,068

2)지출	(단위 :원)
운영비(인건비포함)	14,636,060
자산취득비	22,795,030
시설비	37,271,970
시설장비유지비	0
사업비	1,322,160
잡지출	0
이월금	361,848
합계	76,387,068

부산 우체국 혼사랑의 집

(2000.10.~2000.12.)

1)수입	(단위 :원)
입소자부담금	0
후원금	1,776,000
재단전입금	26,748,720
이월금	0
잡수입	0
합계	28,524,720

2)지출	(단위 :원)
운영비(인건비포함)	2,341,350
자산취득비	10,064,790
시설비	14,000,000
시설장비유지비	210,000
사업비	390,160
잡지출	0
이월금	1,518,420
합계	28,524,720

대구 우체국 혼사랑의 집

(2000.10.~2000.12.)

1)수입	(단위 :원)
입소자부담금	0
후원금	342,000
재단전입금	1,809,100
이월금	0
잡수입	0
합계	2,151,100

2)지출	(단위 :원)
운영비(인건비포함)	1,809,100
자산취득비	342,000
시설비	0
시설장비유지비	0
사업비	0
잡지출	0
이월금	0
합계	2,151,100

◆ 천사백운동 참여현황 (2001. 2. 28. 현재)

자동이체 참여후원자: 3,033명
자동이체 구 좌 수: 21,518구좌

※ 온라인 일시입금은 제외된 현황입니다.

◆ 천사같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2000. 12. 1. ~ 2001. 2. 28.까지 처음으로 후원금을 입금하신 분들)
경남은행(514-07-0175564 예금주:(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타은행도 동일)
김학봉 박은영

광주은행(200-107-315315)
기윤정

국민은행(031-01-0414-356)
김동현 김사홍 김종희 김준호 김효정 김히경 류선영 문진국
송대화 안대봉 양다빈 양문경 양유빈 윤소식 이상선 이영화
정성룡 조원종 최형대 한흥기 현하옥

기업은행(090-000260-04-022)
이향수 하수열 허만덕 홍순경

농 협(029-01-170940)
강용희 권희숙 김영기 김의순 김향진 안미라 양희춘 윤승희
이동훈 이명섭 이의재 이현숙 이형일 정운미 한국클리

대구은행(004-05-179828-001)
권태용 이종선 전수진 정현정 최호창 한경주

부산은행(070-01-021379-8)
서명교 이현숙 조기철

서울은행(16508-2945601)
김나영

신한은행(394-01-000694)
고규인 김선아 김제각 김태현 박미정 안숙경 염진희 임형국
최선경

외환은행(141-22-00799-6)
김순이 김중배 우경복 정 준 정진아

◆ 천사백 후원자님께 알립니다

1. 천사백 우체국통장 계좌번호가 012989-01-000345에서 "012989-01-003313"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우체국을 통해 후원하고 계신 후원자님께서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새로운 계좌로 다시 한번 자동이체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의 계좌는 6월말에 해지됩니다.
2. 재단의 지로번호가 7607451에서 "698144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모든 은행통장의 예금주가 백혈병어린이후원회에서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일은행(225-20-385050)
공승훈 심지연 양송이 윤미경 임혜영 허진

조흥은행(367-01-192434)
김성희 김수진 김웅섭 김은영 김현아 남성현 박영렬 백은진
송은영 엄형균 이윤정 이지현 이호기 전해원 최진숙 최태현

주택은행(488401-01-001485)
고윤희 배경식 백공흠 서옥희 양재원 윤희대 조성탁

축 협(043-11-13275-816)

하나은행(144-121835-00105)
이윤숙 유교준

한미은행(100-59711-251)
강동욱 남철현 유숙임

한빛은행(112-04-112571)
강혜영 김억수 김정경 김정훈 박병훈 박세희 박전한 배은영
오옥수 원대식 유한림 이주호 임의제 임채현 장사용 정용길
조혜정 최방실

우 체 국(012989-01-003313)

지 로(6981440)
강정수 김정희 에덴교회 (주)옥시 이정식 임량수 임성호 차미현

천사백운동 지원환아 천사백후원금을 지원 받은 어린이들을 소개합니다.

심 윤 경(여)

생년월일 : 1986. 5. 20. 진 단 명 :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시기 : 2000. 6. 29. 치료병원 : 가톨릭성모병원

차분하고 수줍음이 많은 16세 소녀 윤경이는 병동의 왕언니입니다. 4월에 이식을 앞두고 있는 윤경이는 현재 입안이 헐어 불편한 것을 제외하고는 순조롭게 이식수술로 한걸음씩 다가가는 중입니다. 지금은 치료로 잠시 학교를 쉬고 있지만, 올 가을쯤은 부쩍 성숙한 여학생을 만날 수 있겠죠?



이 정 희(남)

생년월일 : 1990. 4. 23. 진 단 명 :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시기 : 2000. 6. 27. 치료병원 : 전남대병원

지난 2월 12일 이식을 무사히 마친 정희는 첫 골수검사에서 양호하다는 결과를 들었다며 기뻐했습니다. 최종 생착 결과만을 남겨놓은 정희는 약해진 소화기능 때문에 미음으로 식사를 대신하지만, 높은 생착 가능성에 기운을 내고 있습니다. 이식동안 의료진이 수시로 몸 상태를 점검해 편히 잠들어 본 적이 없다는 정희. 그래서 지금 간절한 소원은 폭 자는 것이라는데.... 하루 빨리 좋은 소식이 있어 정희의 작은 소원도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윤 현 진(남)

생년월일 : 1994. 12. 14. 진 단 명 :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시기 : 2000. 11. 10. 치료병원 : 삼성서울병원

체구는 작지만 능률한 현진이는 부모님과 약속대로 지난 2월 8일, 2차 이식을 잘 견뎌주었다고 합니다.

현진이 부모님은 "1차 이식 때 보다 몇 배는 더 힘든 과정이었는데, 잘 견뎌준 것이 너무 고맙다"고 하시며, 최근 입맛을 되찾아 과자를 찾는 현진이가 대견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현진이는 이식 1달만에 첫 골수검사를 받고, 생착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보 란(여)

생년월일 : 1996. 4. 25. 진 단 명 :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시기 : 1998. 11. / 2000. 2. 재발 치료병원 : 서울대병원

보란이는 자신이 아픈 이유를 배가 똥똥하게 나와서라고 합니다. "배가 들어가면 병이 다 나을 거야"라고 말하던

보란이는 2년 동안 치료를 잘 받아오다가 작년 2월 재발하여 가족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 치료기간동안 부모님께서 겪었을 맘 고생을 뒤로 하고, 올 봄에는 좋은 소식을 기다려 봅니다.



오 예 지(여)

생년월일 : 1994. 8. 4. 진 단 명 : 신경모세포종 진단시기 : 2000. 9. 4. 치료병원 : 가천의대 길병원

예지 아버지가 만들던 도넛처럼 달콤했던 예지네 가족. 예지가 소아암 진단을 받으면서 가족은 참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예지 부모님은 예지가 이식을 성공적으로 받아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운동장을 뛰어다닐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희망을 키워 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예지는 곧, 이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랑의 모음터

◆ 사랑의 헌혈증서 (2000. 12. 1 ~ 2001. 3. 10)

권미진(17) 권오윤(25) 김명호(1) 김명현(25) 김선미(9) 김성덕(7) 김성진(1) 김성태(25) 김수근(16)
김은영(5) 김찬호(1) 네트워크경제 셀피아(143) 버룩시장(1,464) 신용보증기금(199) 신혜경(209)
이근희(14) 이창숙(5) 정영훈(1) 정제현(1) 조남성(1) 조순권(2)

◆ 특별 후원금

2000년 12월 방미혜 150,000 문다순 100,000 이정엽 100,000 파워테크 500,000 김희정 10,000,000 남명자 50,000
사이버출판사 300,000 우순규 180,000 광희중학교 480,270 안현아(母) 100,000 김병욱 3,840,000
삼성SDS 500,000 정부통신부 100,000,000 미국장로교회 114,487 베베타운 10,000,000
사직로터리 200,000 새마을금고 1,000,000 핸디소프트 10,000,000 지명숙 7,000,000
2001년 1월 장기철 140,000 희망분식 56,230 광명교회 125,200 김희정 4,000,000 박점용 300,000
권복희 30,000 맥켄지 7,000,000 에스콰이어 2,000,000 신희영 100,000
2월 손재용 30,000 온호식 100,000 장진식 30,000 최옥성 20,000 뉴욕장로교회 118,330
수일중학교 449,470 정경혜 5,000,000 박현희 300,000 한명철 500,000

◆ 후원물품 (2000. 12. 1 ~ 2001. 2. 28)

故 김승희母 김치, 냉장고(1), 가스렌지(1), 전자렌지(1), 인형(12), 장남감(5), 거울(1), 식기건조기(1), TV(1), 화이트보드(1)
김우영母 김치 성광감리교회 크리스마스선물 이윤혜 크리스마스 장식
임석용 전기밥솥(1) 김희정 모자(8), 인형(10), 러그, 동화책(48) 강효원母 생필품 박찬중 생필품
신희영 인형(135) 이재호母 생필품, 영어교재(4), 영어비디오(12) 이한우 영어비디오(19)

사랑터(봉사모임)에서는 제일생명의 집에 머무르는 어린이들과 어머님들을 위해 매월 식료품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 물품 후원 안내

우리 재단은 비품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무국과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 또는 무상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기증품 하나하나는 큰 도움이 됩니다.

- ▷ 제일생명의 집 : 세제, 비누, 치약, 휴지, 고춧가루, 왕소금, 각종 조미료
아동용 교육비디오 및 도서
- ▷ 경희의료원 부모모임 : 프린터

2001년 봄호는 (주)한일약품 · 유한양행에서 제작지원에 주셨습니다.

발행인 / 송상현 편집인 / 안효섭 발행처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소 / 110-460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14-3번지 전화 / (02)766-7671~3 팩스 / (02)766-7674

예금구좌 / 310-03-002396(조흥은행) 6981440(은행지로) 012989-01-003327(우체국)

090-000260-04-015(기업은행) 001-01-2353-890(국민은행)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